

## 평강왕과 온달모를 중심으로 본 <溫達傳>

정 규 식\*

### 차 례

- |                              |                             |
|------------------------------|-----------------------------|
| I. 논의의 가능성                   | 2. 온달모의 온달 양육과 평강과의<br>결연   |
| II. 평강왕대의 정치적 상황과 온달<br>의 영입 | IV. 온달 영입과 사냥 대회와 상징적<br>의미 |
| III. 온달과 평강의 결연 과정           | V. 결론                       |
| 1. 평강왕의 온달 영입 전략             |                             |

### I. 논의의 가능성

지금까지의 <溫達傳> 연구<sup>1)</sup>는 주로 온달과 평강을 중심으로 진행되

\*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1) 연구자가 확인한 <溫達傳>에 관한 기존 논의는 크게 설화적 관점, 전기(傳奇)문학적 관점, 문체론적 관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논의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현룡, 『온달설화 고찰』,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이창식 편저, 박이정, 2000; 임재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 갈등』,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이창식 편저, 박이정, 2000; 김현길, 『온달-아단성과 아차성에 관한 연구』,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이창식, 『온달전 전승의 구비적 전개와 계승』,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김대숙, 『온달전의 구비문학적 이해』,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손정인, 『<溫

었다. 작품의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온달과 평강이 <溫達傳> 해석의 키워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온달과 평강 외의 다른 인물들이 작품 속에서 적절하게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溫達傳>은 하나의 완성도 높은 작품<sup>2)</sup>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학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 등장인물의 경중을 가려 주요인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작품의 주변인물들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 결과 작품에는 등장하지만 작품 연구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양산되기도 한다. 유기적 체계를 지닌 작품에서는 주요인물 못지않게 주변인물들이 작품 전체의 의미를 산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주요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인물들을 치밀하게 살피는 것은 문학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구조의 경계지점에 놓여 있는 주변인물들은, 허리를 낮추어 자신을 숨기지만 주요인물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작품의 완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겉으로 돌출되지 않

---

達傳>의 가치체계와 의미구조』, 『大東漢文學』 13집, 대동학문화회, 2000; 차충환, 「<온달전>의 설화적 구조」, 『한국고전소설작품연구』, 월인, 2004 등은 설화적 관점에 무게 중심을 두고 논의한 것들이다. 또한 박희병, 『羅麗時代의 傳奇小說』,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정규식, 『羅末麗初 傳奇文學의 主體와 意味』,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4 등은 전기문학적 관점의 논의들이며 김도련, 「삼국사기의 문예적 성과와 사료적 가치」, 『한국고문의 원류와 성격』, 태학사, 1998; 정 민, 「고전문장이론상의 篇章字句法으로 본 온달전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언어학』 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0 등의 논의는 문체론적 관점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기백, 「溫達傳의 檢討」, 『白山學報』 3호, 1967의 논의는 사료적 관점의 논의로서 주목을 요한다.

- 2) 金澤榮, 『韶濩堂文集』 卷八, <雜言> 三, ‘高麗文之傑作 當金文烈公溫達傳爲第一’; 김태준 지음/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37쪽, ‘정치의 대세(大勢)를 무대의 배경으로 삼고 공주의 연애와 온달의 공명을 경위(經緯)로 삼아 아름답게 짜낸 것이다.’ 김택영의 지적은 樸古, 豊厚, 疏宕, 活動之氣로 대표되는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말한 것이며 김태준의 주장은 작품의 논리·의미적 관계인 작품의 응집성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평가는, <溫達傳>이 문체론적, 의미론적, 구조론적으로 아주 우수한 작품임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고 속으로 침잠되며,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간직한 인물이 바로 주변인물<sup>3)</sup>이라 할 수 있다.

<溫達傳>에 등장하는 평강왕과 온달모는 이러한 주변인물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溫達傳>을 읽어내다<sup>4)</sup> 보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작품 전체에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역할과 기능은 <溫達傳>이라는 텍스트의 완결성을 위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온달과 평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평강왕과 온달모는 작품의 표면보다는 이면에서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두 사람은 온달의 영입, 온달과 평강의 결연, 온달의 사냥 대회에서의 능력 발휘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溫達傳>의 해석에서 왕과 온달모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서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며 그들이 작품의 구조 및 의미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溫達傳>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으로 <溫達傳>을 평강왕과 온달모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평강왕에 더욱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배제되었던 인물에 대한 온당한 평가라는 의미와 아울러 <溫達傳>의 구조적 특징을 명확히 하는데 일

3) 최근 정하영, 『홍길동전 인물연구-周邊人物을 중심으로-』, 『한국고소설학회 제75차 정기학술대회』, 한국고소설학회, 2006. 11. 48쪽은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주변인물의 존재와 기능을 확인함으로써 중심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고, 나아가 <홍길동전> 자체의 문학적 성격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본고의 입론 역시 이러한 시각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밝힌다.

4) ‘읽기가 서사물의 표면을 읽는 것이라면 ‘읽어내기(reading out)’는 독서의 표면 수준 또는 표현수준으로부터 보다 깊은 서사 수준으로까지 파고 들어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읽어내기는 ‘표면으로부터 심층으로 서사를 해독해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시모어 체트먼, 『원화와 작화』,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8, 49~50쪽을 참조할 만하다.

정 부분 기여하리라 본다.<sup>5)</sup>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sup>6)</sup>를 바탕으로 한 작가의 꼼꼼한 글쓰기 전략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溫達傳>은, 전(傳)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설화적 전통은 물론 전기(傳奇)문학적 성격까지 함유한 작품이다. 이처럼 작품 자체가 장르 혼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장르의 관점으로 <溫達傳>을 해석하는 것은 자칫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溫達傳>의 경우, 작품의 장르적 속성을 따지기 전에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보다 치밀하게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溫達傳> 해석에서는 온달과 평강의 결연이 평강의 주체적 판단과 적극적인 행위의 결과<sup>7)</sup>이며 온달이 사냥 대회에서 두각을 보이게 된 이유 역시 평강의 지인지감적 자질<sup>8)</sup>과 열부로서의 역할<sup>9)</sup>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또한 결혼의 당사자인 온달도 평강의 주체적 행동과 강인한 의지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면 평강왕과 평강의 갈등, 평강의 출궁, 평강과 온달의 만남과 결연, 사냥 대회에서의 온달의 부각, 평강왕의 온달 영입 등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여러 곳에서 평강왕과 온달모의 역할이 내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5)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이면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주변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서술이나 주변인물의 성격에 대한 묘사 등은 작품의 이면에 침잠되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인물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의 엄밀한 분석과 더불어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 이기백, 앞의 논문, 147쪽.

7) 김현룡, 앞의 논문, 226쪽.

진재교, 「<온달전> 분석의 한 시각」,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이창식 편저, 박이정, 2000, 170쪽.

곽정식, 「설화에서 본 여성의 자각과 성장」, 『동양한문학연구』 18집, 동양한문학회, 2003, 15쪽.

8) 임재해, 앞의 논문, 123쪽.

9) 윤채근, 앞의 책, 73쪽.

다. 평강왕과 공주의 대립, 공주의 출궁, 사냥 대회 개최 등을 통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온달의 영입에서는 평강왕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온달과 평강의 만남과 결연, 사냥 대회에서의 두각 등에서는 온달모의 역할이 눈부시다 하겠다.

## II. 평강왕대<sup>10)</sup>의 정치적 상황과 온달의 영입

<溫達傳>을 읽어내다 보면, 작품의 서사 전개에서 전후 맥락의 유기적 긴밀성이 다소 성기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냥 대회에서부터 후주(後周)와의 전투까지의 서사 전개는 과감한 생략과 압축이 두드러져 독자들을 당혹케 하거나 혹은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작품은 사냥 대회 이후 왕과 온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한다. 단지 사냥 대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평강왕이 온달의 능력을 인정하여 장군으로 삼아 후주와의 전투에 참전케 했다는 것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사냥 대회 직후가 아니라 후주와의 전쟁 후에 비로소 왕이 ‘이 사람이 내 사위라고 하고는 예를 갖추어 맞이하면서’<sup>11)</sup> 공식적으로 온달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했는가는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냥 대회와 실제 전투는 엄연히 다르므로 전쟁에서 높은 공을 세운 뒤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면을 살펴보면 상황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왕은 사냥 대회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온달을 불러와 이름을 묻고는 ‘놀라워하

10) <溫達傳>에 등장하는 ‘平岡王’이 고구려 제 25대 왕인 ‘平原王’인가하는 것은 문제시 될 수 있다. 하지만 ‘平原王 或云平崗上好王’이라는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역사학계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11)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是吾女婿也 備禮迎之’

면서도 남달리 생각(驚且異之)'하기도 했고 온달을 후주와의 전투에서 선봉에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전투의 전공을 논함에 있어 여러 군사들이 온달의 전공을 가장 높이 평가하자 왕이 매우 기뻐했으며 온달에게 대귀족들이 거쳐 가는 직위이면서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거나 일정 규모의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관등<sup>12)</sup>인 대형(大兄)<sup>13)</sup>이라는 벼슬을 하사했다는 것 등을 참조한다면, 사냥 대회 이후 온달과 평강왕의 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당시 온달은 이미 왕의 돈독한 신임을 받아 상당한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후주와의 싸움이 끝난 후 온달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위로 인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왕의 의도'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온달의

12) 박인호, 『溫達을 통해 본 6世紀 高句麗 貴族社會』, 『한국고대사연구』 36집, 한국고대사학회, 2004, 244쪽.

13) 『三國史記』 雜誌 第九를 보면, “고구려, 백제의 관직은 연대가 오래되고 문헌이 모호하므로 그 자세한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여기서는 다만 古記 및 中國史書에 나타난 것을 적어두기로 한다. …(중략)… 冊府元龜에는 ‘고구려는 後漢 때 그 나라에서 관직을 설치하였는데, 相加, 對盧, 沛者, 古鄒大加, 主簿, 優台, 使者, 阜衣, 先人이다. 一說에는 큰 벼슬에 大對盧가 있고 다음에 太大兄, 大兄, 小兄, 意侯奢, 烏拙, 太大使者, 小使者, 褥奢, 翳屬, 先人이니 褥薩까지 아울러 모두 十三 등급이며 다시 內評, 外評이 있어 내외의 일을 나누어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중국의 역대사서에 보이는 것이다. 高句麗百濟職官 年代久遠 文墨晦昧 是故不得詳悉 今但以其著於古記及中國史書者 爲之志 …(中略)… 冊府元龜云 高句麗 後漢時其國置官 有相加 對盧 沛者 古鄒大加 主簿 優台 使者 阜衣 先人 一說大官有大對盧 次太大兄 大兄 小兄 意侯奢 烏拙 太大使者 小使者 褥奢 翳屬 先人 并褥薩 凡 十三等 腹有內評外評分掌內外事焉”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周書』異域列傳 高句麗 條를 보면, “(고구려 관직에서) 가장 높은 벼슬로는 大對盧가 있고 그 아래로는 太大兄, 大兄, 小兄, 意侯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侯, 翳屬, 先人, 褥薩 등의 13등급이 있어 안팎의 일을 나누어 관장한다. 大對盧는 세력의 강약에 따라 서로 싸워 이기면 빼앗아 스스로 되고 왕의 임명을 그치지 않는다. 大官有大對盧 次有太大兄 大兄 小兄 意侯奢 烏拙 太大使者 大使者 小使者 褥侯 翳屬 先人 并褥薩 凡十三等 分掌內外事焉 其大對盧 則以疆弱相陵 脫而自爲之 不由王之署置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구려 사회에서 대형(大兄)이라는 벼슬은 상당히 높은 관직임을 알 수 있다.

(완전한) 영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은 온달을 영입하기 위해 사냥 대회를 개최하고 다시 그를 후주와의 전투에 선봉으로 세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냥 대회 및 후주와의 전투는 왕이 온달을 영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왕은 사냥 대회를 온달 영입의 대내적 계기<sup>14)</sup>로 삼았으며 아울러 후주와의 전투를 온달 영입의 대외적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그 결과 후주와의 전투를 통해 온달의 능력을 확실하게 과시함과 동시에 온달이 자신의 사람임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공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왕이 온달을 영입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문에 대해 작품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외적 상황에 관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우선 평강왕대(559~590) 중국과의 관계, 특히 수(隋)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평강왕은 즉위한 뒤 중국의 여러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받치면서 일정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했다. 이 시기 중국은 남조(南朝)시대인데, 이 시기는 동진(東晉)에서 시작하여 송(宋), 제(齊), 양(梁)을 거쳐 진(陳, 557~589)나라가 수나라에 멸망당할 때까지를 말한다.<sup>15)</sup> 평강왕이 재임하던 시기는 이처럼 중국 대륙의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평강왕은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외교적 교류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실리적인 내실을 기했다고 할 수 있

14) 여기서 말하는 대내적 계기란 '평강왕의 확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온달을 자신의 사람으로 영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강왕 자신의 확신이다. 따라서 사냥 대회를 통하여 온달의 능력을 검증하고는 그를 영입할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냥 대회의 두각만으로는 온달을 자신의 사람으로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른 신료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이다. 온달이 만약 전쟁에서 뛰어난 전공을 올린다면 평강왕이 온달을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15) 김학주, 『수정판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2, 165쪽.

다.<sup>16)</sup> 평강왕 초기에는 주로 제나라 및 진나라와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재위 23년 이후에는 수나라와의 외교가 많아진다. 이러한 외교를 통하여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평강왕이 죽게 되는 재위 32년(590)의 기록을 보면 흥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위 28년에 도성을 옮겼던 왕이 32년에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특기할만 하다.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평강왕은 진이 수에 의해 멸망하자 크게 두려워하여 병기를 수리하고 곡식을 저축하며 방어의 책략을 강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7)</sup> 또한 수나라의 高祖<sup>18)</sup>가 글을 통해 ‘말은 비록 속국이라 하면서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sup>19)</sup>

16) 『三國史記』 卷 第十九, 高句麗 本紀 平原王 條에 등장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二年 春二月 北齊廢帝封王爲使持節領東夷校尉遼東郡公高句麗王.
  - 三年 冬十一月 遣使入陳朝貢.
  - 四年, 春二月, 陳文帝詔授王寧東將軍.
  - 六年, 遣使入北齊朝貢.
  - 七年, 春正月, 遣使入北齊朝貢.
  - 八年, 冬十二月, 遣使入陳朝貢.
  - 十二年, 冬十一月, 遣使入陳朝貢.
  - 十三年, 春二月, 遣使入陳朝貢.
  - 十五年, 遣使入北齊朝貢.
  - 十六年, 春正月, 遣使入陳朝貢.
  - 十九年, 王遣使入周朝貢 周高祖拜王爲開府儀同三司大將軍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 二十三年, 十二月, 遣使入隋朝貢, 高祖授王大將軍遼東郡公.
  - 二十四年,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冬十一月, 遣使入隋朝貢.
  - 二十五年,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夏四月, 遣使入隋朝貢. 冬, 遣使入隋朝貢.
  - 二十六年春, 遣使入隋朝貢. 夏四月, 隋文帝宴我使者於大興殿.
  - 二十七年, 冬十二月, 遣使入陳朝貢.
- 위의 기록들을 통해, 당시 평강왕은 北齊, 陳, 周, 隋 등 여러 나라들과 다각적인 외교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17) 『三國史記』 卷 第十九, 高句麗 本紀 平原王 條, ‘三十二年 王聞陳亡大懼 理兵積穀 爲拒守之策’

라고 질책하자 이에 사과의 글을 올리려던 중 결국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20)</sup> 따라서 수의 위협에 대한 과중한 심리적 중압감이 평강왕을 죽게 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쳤던 평강왕에게 수의 득세가 왜 위협적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중국 측 문헌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에는 수가 고구려를 ‘말만 속국이라 하면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측 문헌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것은 고구려가, 수의 속국인 말갈이나 거란을 괴롭히고 고립시켰으며 심지어는 수나라의 소민(小民)들까지 뇌물로 선동하여 고구려로 도망케 했다는 것이다. 수의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평강왕을 질책하고는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위협했다.<sup>21)</sup>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평강왕의 대수(對隋) 외교는 이중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면에서는 수를 견제하면서 세력 확장을 억누르는 양동 작전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가 진을 멀하고 더욱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자 평강왕은 크게 동요했던 것이다.

당시의 대외적 분위기가 이러했다면 평강왕은 재위 기간 동안 항상 수의 성장과 세력 확장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것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 이민족을 활용하거나 때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수를

18) 『隋書』나 『北史』 등 중국 측 문헌에는 ‘文帝’로 기록되어 있다.

19) 『三國史記』 卷 第十九, 高句麗 本紀 平原王 條, ‘雖稱藩附 誠節未盡’

20) 『三國史記』 卷 第十九, 高句麗 本紀 平原王 條, ‘王得書惶恐 將奉表陳謝 而未果 王在位三十二年 冬十月 薨’

21) 『北史』 卷 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高句麗 條, ‘坐使空館 嚴加防守 又數遣馬騎 殺害邊人 恒自猜疑 密覘消息 慙懃曉示 許其自新’

『隋書』 卷 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傳, 高麗 條, ‘朕若不存舍育 責王前愆 命一將軍 何待多力 慙懃曉示 許王自新耳 宜得朕懷 自求多福’

직접적으로 선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평강왕은 수의 대군과 맞서 싸울 강력한 군대와 뛰어난 장수를 절실히 원했을 것이고 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여 훌륭한 장군으로 성장시키고자 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온달도 포함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마 이러한 이유가 평강왕의 온달 영입의 대외적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평강왕의 온달 영입을 뒷받침할 또 다른 측면은 평강왕대의 국내적 정세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관직제, 그리고 평강왕 자신의 왕위 계승 및 유지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관직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와 중국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최고 관직인 대대로(大對盧)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나라의 관제는 가장 높은 것이 大對盧로 일품과 비슷한데 국사의 전반을 총괄한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적격한 자라면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더러는 순순히 내어 놓지 않기도 하므로, 양편이 군사를 이끌고 서로 싸워 이긴 자가 차지하게 된다. 왕은 다만 궁문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제어하지 않는다. 그 아래는 太대兄으로 正二品과 비슷하며 對盧이하 모두 12등급의 벼슬이 있다.”<sup>22)</sup>

인용한 『舊唐書』 외의 다른 문헌<sup>23)</sup>에서도 대대로에 관한 설명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대로라는 관직의 특수성이다. 여러 문헌에, 대대로는 왕에 의해 임명되기 보다는 자신의 세력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직위라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대로의 세력이 강력할 경우 왕권의 약화나 위축으로 권력 누수 현상을 가져 올

22) 『舊唐書』 東夷列傳 高句麗 條, “其官大者號大對盧 比一品 總知國事 三年一代 若稱職者 不拘年限 交替之日 或不相祇腹 皆勒兵相公 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禦 次曰太대兄 比正二品 對盧以下官 總十二級”

23) 『周書』나 『新唐書』의 내용 역시 『舊唐書』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대대로의 직위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간의 쟁탈전도 치열하여 많은 분쟁들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왕은 그 쟁탈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지 결과에 따를 뿐이었다. 왕은 싸움의 결과에 따라 승자를 대대로의 직위에 임명하게 되므로 왕과 대대로의 관계는 일반적인 종속관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대대로는 왕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세력으로 쟁취한 직위에 해당되므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상당한 권세를 누렸을 것이다. 나아가 왕과 대립하기도 하고 때론 거침없는 직언으로 왕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을 때도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왕이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 대대로가 국정의 전권을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권력 집단의 관계는 상보적일 경우는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었겠지만 대립적일 경우에는 서로를 견제하는 긴장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이다.<sup>25)</sup> 『三國史記』의 기록을 보면, ‘힘센 신하와 호족들이 모두 나라의 일을 쥐고서 봉

24) 왕과 대대로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貴族相爭과 왕이 제어하지 못하는 대대로의 위세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흥식,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301~304쪽; 임기환,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動向』, 『한국고대사연구』 5집, 한국고대사학회, 1992, 29~32쪽; 閔喆熙, 『高句麗 陽原王·平原王代의 政局變化』, 『史學志』, 단국사학회, 2002, 85~92쪽 등의 논의가 주목된다.

25) 역사학계의 다양한 자료를 참조해 보면, 고구려 사회를 ‘부체제(초기)-중앙집권체제(중기)-귀족연립체제(후기)’로 분리하는 시각이 일반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 초기의 정치 체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분하지만 후기의 귀족관료 혹은 귀족연립체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후기 사회가 귀족연립체제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귀족 집단인 ‘막리지-대대로’ 체제의 존재로도 확인된다. 특히 안장왕대에서 영양왕대에 귀족 세력 간의 거둬들인 쟁쟁 과정에서 왕권은 점차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상실해 갔고, 이후의 정국 운영의 주도권은 쟁쟁의 주체인 귀족들의 손에 넘어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장왕 이후의 정치 체계는 기본적으로 귀족 연립정권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40~46쪽, 283쪽.

노태돈, 『高句麗의 漢江流域 상실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한국사연구회, 1976, 32~33쪽.

당을 만들어 서로 결탁하는 것을 풍습으로 여기니<sup>26)</sup>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평강왕의 후임이었던 영양왕대 역시 왕권의 약세와 신권의 강세가 여전했다는 것은 당시의 이러한 정세를 잘 반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왕과 대대로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면 왕은 대대로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평강왕 즉위 시기인 6세기로 접어들면서 귀족 연립정치가 고착화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중리제(中裏制)를 개편했다는 사실<sup>27)</sup>과 평강왕 이후의 귀족 연립정치를 견제하기 위해 중리태대형(中裏太大兄)<sup>28)</sup>을 두었던 점<sup>29)</sup>을 감안한다면 당시 평강왕은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위의 다른 세력과 연합하는 것은 왕권 강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합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혼인을 통한 연합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평강왕에게 평강의 결혼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유효하다면 온

26) 『三國史記』卷 第二十, 高句麗本紀 第八, “強臣豪族 咸執國鈞 朋黨比周 以之成俗”.

27) 이문기, 「고구려 중리제의 구조와 그 변화」, 『대구사학』 71집, 대구사학회, 2003, 126~130쪽.

28) 여기서 우리는 평강왕이 온달에게 하사한 ‘大兄’이라는 벼슬과 중리태대형의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7세기 중반 고구려 인물인 泉男産과 泉男生의 墓誌를 살펴보면 그들의 歷官이 ‘소형-대형-위두대형-태대막리지(중리태대형)’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兄’系 관등의 陞差는 그 연속성이 담보되어 있었던 것임을 말한다 하겠다. 즉, 대형의 벼슬에 오른 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리태대형의 벼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바로 평강왕이 온달을 영입한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산과 남생의 역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문기(위의 논문, 92~98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9) 이문기, 「고구려 막리지의 관제적 성격과 기능」, 『백산학보』 55, 백산학회, 2000.

달과 평강의 결혼이 왕의 온달 영입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겠다.

이와 아울러, 평강왕 자신의 왕위 계승 및 왕권 유지와 관련된 사실에서도 왕권 강화를 위한 외부 인물 영입의 이유를 알 수 있다. 평강왕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늦은 태자 책봉과 그에 따른 짧은 태자 재위 기간이다. 고구려 25대왕으로 즉위한 평강왕은 23대 안원왕(安原王, 531~545)의 손자이다. 안원왕은 22대 안장왕(安臧王, 519~531)의 아우로 안장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자 왕위를 잇게 된다. 그러므로 안원왕 집안은 왕위 계승의 적자가 아니었다.<sup>30)</sup> 이러한 상황 하에 평강왕의 아버지인 양원왕(陽原王, 545~559)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양원왕의 장자인 양성(陽成)의 태자 책봉이 좀처럼 이루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양원왕 13년에 비로소 양성이 태자로 책봉되는 데 바로 그가 평강왕이다.<sup>31)</sup>

당시 고구려의 태자 책봉 시기를 선왕의 등극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대체로 선왕의 재위 3년에서 7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sup>32)</sup> 그럼에도 평강왕은 부왕이 왕위에 등극한지 13년이 되도록 태자로 책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태자로 책봉 된지 2년 만에 부왕의 죽음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sup>33)</sup> 따라서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평강왕은 늦게 태자로 책봉되었으며 또한 짧은 태자 재위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평강왕의 왕위

30) 신인철, 『고구려의 왕위 계승의 원리』, 『민족학연구』 1집, 한국민족학회, 1995, 194~195쪽.

31) 『三國史記』 卷 第十九, 高句麗 本紀 陽原王 條, ‘十三年 夏四月 立王子陽成爲太子’

32) 18대 고국양왕에서 26대 영양왕까지의 태자 책봉 시기를 보면 왕의 재임 3년에서 7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왕개토왕 18년에 태자로 책봉되는데 이는 장수왕이 광개토왕 4년에 출생했기 때문이다.

33) 『三國史記』 卷 第十九, 高句麗 本紀 平原王 條, ‘陽原王在位十三年爲太子 十五年 王薨 太子卽位’

계승이 순탄치 않았으며 나아가 어렵게 태자로 책봉된 후에도 부왕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울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위에 오른 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부담감은 과중되고 강력한 신권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훌륭한 외부 인물을 영입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온달’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평강왕은, 자신이 놓여 있는 대내외적 상황 하에서 국가와 자신을 위해 헌신하면서 왕권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인물을 원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기존의 권력 구도와는 전혀 무관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집단의 새 인물을 영입하여 완전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강왕의 입장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온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온달은 기존의 권력 구도의 인물이 아니었다. 자연히 평강왕의 온달 영입은 기존 세력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을 것이다. 이에 평강왕은 그러한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냥 대회에서의 능력 과시-후주와의 전쟁 승리 견인’이라는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온달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인물의 영입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온달과 평강의 결연 과정

지금까지의 내용이 평강왕이 온달을 영입한 이유라면, 이제 남은 문제는 온달 영입 과정이다. 평강왕은 온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입했는가 문제인데 그 과정이 이채롭다. 평강왕이 온달을 영입하게 된 이유

는 전적으로 평강왕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상황만을 내세워 아무런 절차 없이 온달을 영입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평강왕은 온달을 영입할만한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명분을 그의 딸인 평강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그 명분이란 단지 온달이, 출궁한 평강과 결연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자신의 치밀한 전략 하에 평강으로 하여금 온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만든 명분이라 할 수 있다.

평강왕이 평강을 내세워 온달을 영입하려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온달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평강왕에게는, 훌륭한 인품과 우수한 재능을 소유하여 관료들은 물론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다.

### 1. 평강왕의 온달 영입 전략

레비-스트로스는 한 집단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을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sup>34)</sup>고 하였다. 자신의 집단이 다른 집단과,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 집단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집단의 영속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한 집단 간의 결속력을 가장 강력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인관계임은 자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평강왕에게 있어 평강은 왕권 강화와 집단의 안녕을 위해 훌륭한 교환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왕은 공주가 훌륭한 교환 가치임을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평강왕대에는 이미 통혼권(通婚圈)<sup>35)</sup>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왕실의 결혼은 사실상 그 대상 집단이 정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강왕이 기존의 통혼권

34) 레비-스트로스, 안정남 역, 『야생의 사고』, 한길사, 1996, 179~180쪽.

35) 이기백, 앞의 논문, 151~153쪽.

내의 인물을 사위로 맞이한다는 것은 앞서 살핀 왕권 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술한 왕실의 혼인이 통혼권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인데도 왕권의 강화가 용이치 못했던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오히려 통혼권 내에서의 혼인은 왕권 약화의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평강왕은 평강을 통혼권 내의 인물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의 영입에 적극 활용하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평강왕이 온달을 자신의 사위로 영입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평강에게 온달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평강이 어려서 자주 울자 평강왕은 공주의 울음을 달래려고 ‘네가 항상 귀가 따갑도록 시끄럽게 운다면 자라서 사대부의 아내가 되기 어려우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sup>36)</sup>라고 말한다. 이러한 취지의 말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평강이 울 때마다 왕은 같은 말을 반복했을 것이다. 이는 평강이 자주 울었다<sup>37)</sup>라는 내용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강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결혼 상대는 온달이라고 굳건히 믿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평강왕이 평강에게 온달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강왕의 온달 각인은 결국 공주가 열여섯이 되었을 때, 그 의미가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어릴 적 부모로부터 들은 말은 단순히 임기응변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만한 나이가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하더라도 우스갯소리로 치부할만한데도 평강은 그렇지 않았다. 공주는 부왕이 자신을 상부고씨(上部高氏)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어릴 적 부왕의 말을 이유로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왕된 자는 실없는 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은 잘 못되었으니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sup>38)</sup>라고 강력히 저항한다. 평강의 완강한 저항에 대해 평

36)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汝常啼眊我耳 長必不得爲士大夫妻 當歸之愚溫達’

37)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平岡王少女兒好啼’

강왕도 한 치의 양보가 없다. 결국 평강왕은 ‘네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실로 내 딸이 아니다. 어찌 같이 살겠느냐?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거라.’<sup>39)</sup>라고 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결국 공주의 출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평강왕의 입장이다. 평강이, 부왕의 말의 꼬투리를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의아한 점은 평강의 거부에 대한 평강왕의 반응인데, 평강이 자신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자 바로 궁궐을 나가라고 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진심으로 평강을 상부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했다면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평강을 달래어 설득해야 할 것인데, 평강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궁을 나가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이다.<sup>40)</sup> 이는 국가를 경영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는 왕의 언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평강왕이, 오래 전에 평강에게 온달이라는 존재를 각인시켜 놓고 이후 상부고씨와의 혼인을 추진한다는 이유를 빌미로 평강과의 갈등을 조장하여 결국 평강이 출궁하도록 유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평강왕은 무슨 근거로 온달을 영입하려 했을까하는 점이다. 즉, 온달의 사람됨이나 가능성을 어떻게 파

38)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王者無戲言 今大王之命謬矣 妾不敢祇承’

39)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汝不從我教 則固不得爲吾女也 安用以同居 宜從汝所適矣’

40) 물론 왕이 평강과의 갈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궁을 나가라고 했다가 혹은 설마 평강이 정말로 궁궐을 떠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언행을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강왕의 의도가 그러했다면 궁을 떠나려는 평강을 만류하거나 출궁한 평강을 회유하여 돌아오게 했어야 했음에도 전혀 그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녀갈등 및 평강의 출궁은 평강왕이 이미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악했을까? 이는 <溫達傳>의 서두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작품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이다. 용모가 늙수그레하고 우습게 생겼으나 마음속에는 성한 기운이 있었다. 집이 가난해서 항상 밥을 빌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했다. 헤어진 옷과 떨어진 신을 신고 시장을 오가므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 온달’이라 하였다.”<sup>41)</sup>

제시된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온달의 용모는 볼품없으나 마음은 밝은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온달의 심지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무언가 빛을 발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초라한 행색으로 시장 사이를 오가면서 밥을 빌어 盲母를 봉양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온달을 ‘바보 온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인용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온달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온달은 가슴 속에 품은 깊은 뜻이 있는 심지 강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온달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원문의 ‘曄’은 ‘曄’과 같은 의미<sup>42)</sup>인데, 이 글자는 ‘광휘를 발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曄然’은 무언가가 ‘성대한 모양을 의미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온달은 단순히 겉모습으로 평가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밥을 빌어 맹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효 사상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물임을 말한다 하겠다.

이러한 온달에 대한 정보는 평강왕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

41)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溫達高句麗平岡王時人也 容貌龍種可笑 中心而曄然 可甚貧 常乞食以養母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 時人目之爲愚溫達’

42)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曄(恐作曄)’

리므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국력을 강건히 하고 귀족세력에 맞서 왕권을 공고히 해야 하는 위치에 있던 평강왕으로서는 온달과 같은 인물을 놓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온달은 맹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효행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물<sup>43)</sup>이므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만 하면 국가와 자신에게 충성을 다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온달을 ‘바보 온달’이라고 한 것도 문제이다. 작품에서 제시되어 있는 온달에게서 바보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편안히 봉양하는 의지 강한 효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서 바보의 면모를 찾기는 어렵다. 반면 시장에서 밥을 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온달을 ‘거지 온달’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 개연성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온달의 실질적인 모습과 ‘바보 온달’이라는 호칭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자의적인 관계로 설정되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 불렀고 당시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고 우매한 최악의 신랑감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평강왕은 온달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모순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평강왕은 온달이 바보가 아니라 단지 거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바보가 정신적·인격적 결핍의 인물이라면, 거지는 신분적·경제적 결핍의 인물이다. 따라서 온달의 결핍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필연성이 아닌 자의적으로 연결된 바보와 온달이라는 고리는 어떤 인물의 도움이나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끊어질 수 있고 새로운 위치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sup>44)</sup> 그러므로 작품 내에서 이러한 자의적 관계를 변화시켜줄 인물과 그것을 공고히 해줄 사건의 등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43) 우리말에 ‘효자 집안에 충신 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평강왕은 온달을 충신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인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4) 정규식, 앞의 논문, 108~109쪽.

그러므로 평강왕은 온달이 훌륭한 재목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평강과의 결연을 통해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평강의 출궁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온달모의 온달 양육과 평강과의 결연

공주의 출궁으로 인해 평강왕의 온달 영입 전략은 한 고비를 넘겼다. 이후, 평강왕의 적극적인 개입은 사냥 대회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온달모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작품 속 온달모는 사냥꾼으로서의 온달의 성장 및 온달과 평강이 결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

공주는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온 보물을 팔꿈치에 끼고 곧 바로 온달에게 갔다. 하지만 온달은 없고 맹인인 온달모만 있어 그녀에게 절을 하고는 온달이 있는 곳을 물었다. 그러자 온달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아들은 가난하고 누추하여 귀인이 가까이 할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그 향기가 범상치 않고 손을 만지니 숨처럼 부드러우니 필시 천하의 귀인일 것입니다. 누구의 꼬임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sup>45)</sup>

자신의 자식을 찾아 온 평강에게, 온달모는 곡진한 말로 온달과의 결연을 거부한다. 눈이 보이지 않는 탓에 후각과 촉각을 동원하여 평강이 귀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는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온달모의 진실이 아니라 평강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5)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吾子貧且陋 非貴人之所可近 今聞子之臭 芬馥異常 接子之手 柔滑如綿 必天下之貴人也 因誰之佞 以至於此乎’

“내 자식은 지극히 누추하여 귀인의 짝이 되기 어렵습니다. 집도 너무 가난하여 진실로 귀인이 거처하기가 어렵습니다.”<sup>46)</sup>

이 인용문은 평강이 사립문 밖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날, 평강이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모두 들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온달모의 말이다. 또한 이 인용문은 평강의 말을 들은 온달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sup>47)</sup> 복잡한 상황을 갈무리하는 명쾌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문면의 내용은 기실 앞의 인용문과 대동소이하다. 자식은 볼품없고 집은 가난하니 당신 같은 귀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의미론적 자질보다 화용론적 자질을 바탕으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이 말은 온달모가 평강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시를 통해 평강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담긴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48)</sup> 온달모의 이 말로 두 사람의 결연은 암묵적으로 승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온달모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은 앞서의 완강한 거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인의 몸으로 사립문 밖에서 하룻밤을 지낸 평강의 의지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평강의 사연을 듣고 난 뒤의 결정이었으므로 안타까운 평강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저 정도의 신분과 의지를 갖춘 여인이라면 자신의 자식을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선견적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달모는 온달을 훌륭한 사냥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는 온달이 배고픔을 이기지

46)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吾息至陋 不足爲貴人匹 五家至窶 固不宜貴人居’

47)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溫達依違未決’

48) 일상 생활에서도 이러한 화법은 사용된다.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히 제시하여 상대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화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못하여 느릅나무 껍질을 채취하러 산속에 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sup>49)</sup>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다면 의당 시장에 가서 밥을 빌면 될 것인데 왜 산속으로 갔을까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채취하여 그것을 팔아, 먹을 것을 장만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의 서두에 보이듯 온달은 늘 시장에서 밥을 빌어 먹고 살았다. 그러므로 온달이 산속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산속에 가서 느릅나무 껍질을 채취한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다른 의도는 무엇일까? 이는 온달모가 온달을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느릅나무는 주로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이것의 껍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해박해야 할 것이며 신속하게 산과 계곡을 누벼야 한다. 이는 바로 강건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지리적 정보에 대한 해박함이라는 사냥꾼으로서 기본 자질을 다지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충분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온달을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온달이 온달모와 함께 살면서 산 속을 누비는 훌륭한 사냥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과정에 관한 연구자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에 인용된 빅터 터너의 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방증된다고 하겠다.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다른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 옮겨 갈 때에는 종종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공간적·지리적 이동이 병행되기도 한다. …(중략)… 어떤 사냥꾼 사회에서 젊은 소년들이 그들의 성년식 때까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성년식을 마친 뒤에는 그 부족의 사냥꾼들과 함께 살게 될 때 등은 그러한 변화의 좋은 예이다.”<sup>50)</sup>

49)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傳>, ‘惟我息不忍饑 取楡皮於山林’

50) 빅터 터너, 이기우·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술사, 1995, 42~43쪽.

인용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온달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기의 온달은 아직 어린 사냥꾼 즉 미성숙한 사냥꾼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시기에 온달은 어머니와의 생활을 통하여 사냥꾼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질을 갖추었던 것이다. 이후 평강의 등장으로 인하여 온달은 뛰어난 사냥꾼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온달이 어머니의 영역에서 벗어나 평강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온달의 최고의 사냥꾼을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달의 사냥꾼으로서의 뛰어난 능력은, 온달모가 다져 놓은 토대 위에서 평강에 의해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달이 낙랑 언덕에서 개최되는 사냥 대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온달이 훌륭한 사냥꾼의 자질을 지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온달모의 적극적인 온달 양육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 하겠다.<sup>51)</sup> 또한 그러한 온달을 평강이라는 인물과 결연시켜 좋은 짝을 만나 더욱 빛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 역시 온달모라는 사실도 중요한 점이라 할 것이다.<sup>52)</sup>

51) 온달이 사냥 대회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평강의 경제적 지원, 婦德한 평강의 온달 섬김, 國馬選擇, 駿馬養育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이미 기존논의에서, 작품을 평강 중심으로 논의할 때 언급되었던 사실들이다. 본고는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기존 논의들과는 입론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52) 작품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溫達傳>에서 온달과 평강은 평강왕과 온달모가 마련해 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피동적인 존재일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중심인물의 배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영웅의 뒤에는 역사 속의 민중들이 있듯이 중심인물의 뒤에는 주변인물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주변인물이 부각된다고 중심인물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작품 속의 장면들이나 사건들은 중심인물과 주변인물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평강과 온달의 결연 과정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일방적 의지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런 점을 망각하여 평강과 온달의 결연이 전적으로 평강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하곤 했다.

#### IV. 온달 영입과 사냥 대회의 상징적 의미

지금까지 <濫達傳>을 살핀 결과, 온달과 평강의 결연 과정에는 평강왕과 온달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강왕은 온달을 영입하기 위해 평강에게 온달에 대한 각인, 평강과의 갈등, 그리고 평강의 출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온달모는 온달이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온달과 평강의 결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결국 온달과 평강의 결연 과정은 평강왕에 의해 ‘말해진 것’이 결국 작품 속의 등장 인물인 평강과 온달, 그리고 온달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이, 온달모의 승인으로 인한 두 사람의 결연을 마지막으로 끝났다면 <濫達傳>은 평범한 이야기로 흘러갔을 것이다. 작품은 사냥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고 그로 인해 결국 평강왕의 온달 영입 전략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왜 평강이 온달 영입의 방편으로 굳이 사냥 대회를 택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

“나라에 군대 기르는 비용이 없어도 짐짐마다 짐승을 수확할 수 있었다. 윗사람은 군대를 양성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모두 사냥의 예절을 배웠다. 윗사람이 주지 않아도 창이 날카롭고 갑옷이 견고해졌으며, 윗사람이 시험해 보이지 않아도 정확히 쏘아 먼 곳까지 이르렀고 손이 가볍고 발이 익숙해졌고, 윗사람이 조련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공격하여 죽이고 치고 찌르는 것을 익혀 노인이 되더라도 남이 대신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들이 맹수를 잡는 것을 보면 마치 토끼를 잡는 것 같으니 전쟁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는가?”<sup>53)</sup>

53) 李贄, 『焚書』 卷三, 雜述, 兵食論, ‘是故國未嘗有養兵之費 而家家收獲禽之功 上之人未嘗有治兵之名 而人人皆三驅之選 戈矛之利 甲冑之堅 不待上之與也 射疎及遠 手輕足便 不待上之試也 功殺擊刺 童而習之 白首而不相代 不待上之操也 彼其

인용문의 내용대로 사냥은 단순히 뛰어다니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모의 전쟁이었다. 살아서 뛰어드는 표적물을 활로 쏘거나 창을 던져 노획하는 것은 어떤 군사 훈련보다도 실전 전쟁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냥 실력은 곧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맹하게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온달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건을 사냥 대회로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 사냥 대회가 3월 3일 개최되는 낙랑 언덕의 사냥 대회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고구려에서 사냥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왕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많은 대규모의 정기적 사냥은 국가적인 제의에 쓰일 희생 제물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였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군사훈련이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해마다 3월 3일 낙랑 언덕에서 왕과 5부의 군사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의 사냥을 하고 그 수확물로 친지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sup>54)</sup>

고구려 사회에서 사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서 행해지는 사냥 대회는 국가적인 주요행사였다. 여기에서 잡은 노획물로 하늘과 산천신에게 받쳐 제사를 지낸 것은 천손으로서의 왕의 권위와 존재를 확인하고 전승(정복)이나 풍요와 안녕을 축원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겠다.<sup>55)</sup> 이처럼 3월 3일에 개최된 낙랑 언덕의 사냥 대회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제천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냥 대회에 왕과 5부의 군사가 모두 참여했다는 점은, 이 행사가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행사였음을 말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냥 대회는 정치적 측면으로 볼 때나 군사적 측면으로 볼 때, 고구려 사회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국가적 행사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視搏猛獸如搏田兔然 又何有於卽戎乎?

54) 전호태,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1999, 199~200쪽.

55) 신형식, 『고구려사』, 이화여대출판부, 2004, 262쪽.

이러한 행사에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온달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온달의 영입과 사냥 대회의 개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사냥 대회가 온달 영입에 미치는 문화 상징적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다. 사냥이 가지는 문화 상징적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의 인용문을 참조할만 하다.

“식용 가능한 동물과 혼인 가능한 인간에 대한 규정에도 일련의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애완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되듯이 가족끼리의 결혼도 금지되어 있다. 반면 가축들을 대개 식용으로 삼듯이 우리들은 같은 인종 내에서나 이웃 중에서 결혼 상대를 구한다. 야생 동물은 특정한 시기에만 식용되며, ‘허가받은’ 사람에 의해서 ‘허가받은’ 시기에만 죽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가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으며, 사냥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시기를 정해 두고 있다. 사냥감(야생의 식용 동물)이 축제 때 먹게 되는 특별한 요리의 대상이듯이 타인종과 결혼은, 예컨대 정치적 동맹을 맺을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sup>56)</sup>

존 피스크의 논리는 레비-스트로스의 ‘외혼규정과 음식물 금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내혼제 집단에서 외혼을 금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금기시한 음식물(동물이든 식물이든)을 섭취한 집단과는 혼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57)</sup> 레비-스트로스와 존 피스크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냥은, 사육을 통해 획득되는 일상적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는 금기시되었던 특별한 음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이며 그것은 특정 시기 특정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냥 대회를 통한 온달의 영입은, 통혼권으로 규정되어

56) 존 피스크, 강태완·김선남 옮김, 『구조주의 이론과 응용』,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220~221쪽.

57) 레비-스트로스, 안정남 역, 앞의 책, 179~188쪽.

있던 고구려 왕실의 전통적 결혼 풍습을 위배하고 새로운 집단과의 결혼을 도모하는 것의 상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결혼이 인정되지 않았던 집단과의 결혼도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시기에 행해지는 사냥을 통해, 늘 먹던 음식이 아닌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결혼 역시 특별한 정치적 상황과 직면했을 때, 비로소 일반적 규정에서 위배되었던 혼인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서,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을 획득하는 수단이 사냥이었듯이 통혼권 내의 인물과의 결혼이 아닌 새로운 인물과의 결혼의 상징적 의미를 사냥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냥과 집단 간의 결혼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애드먼드 리치의 주장으로도 뒷받침된다. 애드먼드 리치는 성적(性的) 접근성과 동물의 가식성(可食性)을 대비시켜 사냥과 집단의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가족은 근친상간 금지의 영역이며 친척은 혼전 성관계와 연결되는 혼인 금지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까운) 타집단과는 혼인 동맹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아주 먼 집단과는 성적 결합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적 접근성의 관계는 동물에 대한 가식성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때문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애완동물을 불가식성의 영역으로 설정되며 소나 돼지와 같은 사육동물은 거세된 가식성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사냥을 통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거세되지 않은 가식성의 영역으로, 마지막으로 아주 먼 야생동물들은 불가식성의 영역으로 범주화된다.<sup>58)</sup>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세 번째 혼인 동맹과 사냥으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의 관계이다. 이는 인간들이 가까운 타집단과의 혼인을 통해 우호적

58) Leach, E.(1964), "Anthropological aspects of Language : animal categories and verbal abuse", in E. Lenneberg(ed.)(1964),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anguage*, Cambridge, Mass. : MIT press, pp.43~44.

관계를 유지하듯 사냥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통해 먹을 것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둘은 그 구조적 관계가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사냥과 집단의 결연 관계는 긴밀한 상관성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濫達傳>의 사냥 대회를 해석한다면, 왜 사냥 대회를 통하여 온달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濫達傳>의 사냥 대회는 평강왕이 온달을 영입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평강과 온달의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동시에 기존의 집단이 아닌 새로운 집단과의 결연을 도모하려는 평강왕의 의지가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혼과 식생활 관습의 관계는 보충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상호변증법적인 관계<sup>59)</sup>라는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온달은 평강왕의 사위로 공인되었고 결국 평강왕의 은총과 영화가 더욱 커지고 권세가 날로 성대해져 갔던 것이다.<sup>60)</sup> 이후 온달은 영양왕(嬰陽王)이 즉위<sup>61)</sup>하자 신라에게 빼앗긴 고토 회복의 의지를 불사르며 출군을 허락 받아 고구려를 위해 전쟁터를 누비다가 결국 전투 중 아단성(阿旦城) 아래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sup>62)</sup>

| the categories of sexual accessibility                     | the categories of edibility                                      |
|--|--|
| incest prohibition   | inedible   |
| marriage prohibition coupled with premarital sex relations | castration coupled with edibility                                |
| marriage alliance, friend/enemy ambiguity                  | edible in sexually intact form; alternating friendship/hostility |
| no sex relations with remote strangers                     | remote wild animals are inedible                                 |

59) 레비-스트로스, 안정남 옮김, 앞의 책, 180쪽.

60)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濫達傳>, ‘由此寵榮 尤渥 威權日盛’

61) <濫達傳>에는 陽原王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嬰陽王의 오류이다. 이는 이미 이병도(『韓國史』 古代篇, 1959, 457쪽)와 이기백(앞의 논문, 149쪽)이 지적한 바이다.

62)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濫達傳>, ‘與新羅軍於阿旦城之下 爲流矢所中 路而死’

이처럼 온달은 자신을 등용하여 장군으로 삼은 고구려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 고구려는 곧 자신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평강왕과 동일한 상징적 존재이므로 자신의 안위를 잊은 채 국가를 위해 생을 다 했던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溫達傳>을 평강왕과 온달모를 중심으로 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 평강왕은 온달의 각인, 공주와의 갈등, 공주의 출궁, 그리고 사냥 대회의 개최 및 후주와의 전쟁 등을 통해 온달을 완전한 자기 사람으로 영입하려 했으며 온달모 역시 온달이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했으며 온달과 평강의 결연에서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뛰어난 서사는 인물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치밀하면서 역동적일 때 그 가치가 빛난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서사물에 대한 연구 역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작품의 구조나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혀낼 때, 작품 연구의 의미가 발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변인물을 가지치기하고 주요인물만을 중심으로 작품의 의미를 논한다면 그것은 작품 해석에 있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형 서사체의 경우, 압축적인 내용으로 인해 인물들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작품을 보다 치밀하게 따져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의 시도는 기존 논의와 변별되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작품에는 등장하지만 작품 연구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소외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기존 논의에서 누락되었던 인물들을 새롭게 부조하여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이다.

<溫達傳>의 텍스트는 글자 하나에서 구절 하나, 나아가 단락간의 연

결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치밀하고도 꼼꼼한 안배와 배치 속에 조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63)</sup> 이러한 작품에 대한 해석은 의당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본고의 접근은 <溫達傳> 해석의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에게 남은 과제는 이러한 시도가 여타의 작품은 물론 본격적인 소설 작품들에서도 얼마나 유용하며 나름의 가치가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溫達傳>이라는 단일 텍스트를 통해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후 이러한 시각을 여러 작품들에 적용하여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溫達傳>, 주변인물, 평강왕, 온달모, 평강, 온달, 사냥 대회, 통혼권

---

63) 정민, 앞의 논문, 37쪽.

## 참고문헌

### 1) 자료

『三國史記』, 『北史』, 『隋書』, 『周書』, 『新唐書』, 『舊唐書』, 『焚書』, 『韶漢堂文集』

### 2) 논저

곽정식, 「설화에서 본 여성의 자각과 성장」, 『동양한문학연구』18집, 동양한문학회, 2003, 5~32쪽.

김대숙, 「온달전의 구비문학적 이해」,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141~162쪽.

김도련, 『한국고문의 원류와 성격』, 태학사, 1998, 1~482쪽.

김태준 지음/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한길사, 1990, 1~280쪽.

김학주, 『수정판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2, 1~689쪽.

김현길, 「온달-아단성과 아차성에 관한 연구」,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31~55쪽.

김현룡, 「온달설화 고찰」,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이창식 편저, 박이정, 2000, 223~243쪽.

노태돈, 「高句麗의 漢江流域 상실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13, 한국사연구회, 1976, 29~57쪽.

레비-스토로스 지음/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한길사, 1996, 1~423쪽.

민철희, 「高句麗 陽原王·平原王代の 政局變化」, 『史學志』, 단국사학회, 2002, 55~94쪽.

박인호, 「溫達을 통해 본 6世紀 高句麗 貴族社會」, 『한국고대사연구』36집, 한국고대사학회, 2004, 231~256쪽.

- 박희병, 『羅麗時代의 傳奇小說』,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113~172쪽.
- 빅터 터너 지음/이기우·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5, 1~253쪽.
- 손정인, 『<濫達傳>의 가치체계와 의미구조』, 『大東漢文學』13집, 대동학 문학회, 2000, 229~263쪽.
- 시모어 체트먼/최상규 역, 『원화와 작화』, 예림기획, 1998, 1~425쪽.
- 신인철, 『고구려의 왕위 계승의 원리』, 『민족학연구』1집, 한국민족학회, 1995, 133~204쪽.
- 신형식, 『고구려사』, 이화여대출판부, 2004, 1~428쪽.
-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1~496쪽.
- 이기백, 『濫達傳의 檢討』, 『白山學報』3호, 1967, 143~154쪽.
- 이문기, 『고구려 중리제의 구조와 그 변화』, 『대구사학』71집, 대구사학회, 2003, 75~135쪽.
- 이창식, 『온달전 전승의 구비적 전개와 계승』,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79~109쪽.
- 임기환,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動向』, 『한국고대사연구』5집, 한국고대사학회, 1992, 5~55쪽.
-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1~283쪽
- 임재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 갈등』,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이창식 편저, 박이정, 2000, 111~139쪽.
- 전호태,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1999, 1~214쪽.
- 정규식, 『羅末麗初 傳奇文學의 主體와 意味』,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74쪽.
- 정민, 『고전문장이론상의 篇章字句法으로 본 온달전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언어학』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0, 15~38쪽.
- 존 피스크 지음/강태완·김선남 옮김, 『구조주의 이론과 응용』, 『커뮤니

- 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361쪽.
- 진재교, 「<온달전> 분석의 한 시각」,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이  
창식 편저, 박이정, 2000, 165~195쪽,
- 차충환, 「<온달전>의 설화적 구조」, 『한국고전소설작품연구』, 월인,  
2004, 13~41쪽.
- Edmund Leach, “Anthropological aspects of Language : animal  
categories and verbal abuse”, in E. Lenneberg(ed.)(1964),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anguage, Cambridge, Mass. : MIT  
press. 23~63쪽.

<Abstract>

A study on King of PyeongGang and mother  
of OnDal of <OnDalJeon溫達傳>

Chung, Ku-Sik

A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OnDalJeon溫達傳> in the existing viewpoints is visual, and to be different. This paper interpreted a work around surrounding persons like king of PyeongGang and mother of OnDal. This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iscussions.

Therefore, it was to the excellent work which role of a surrounding person and a function were organized systematically, and it was finished, and <OnDalJeon溫達傳> was able to know it. King of PyeongGang and mother of OnDal were important persons for hanging it.

King of PyeongGang bring OnDal in order to overcome the political situation that oneself was placed in, and it is to have used PyeongGang for them. Also, mother of OnDal fed you so that OnDal grow to excellent hunters. And led positively a marriage of OnDal and PyeongGang.

Specially, a hunting contest to appear in it to a work call an important section of <OnDalJeon溫達傳> interpretation to symbolize OnDal welcoming of king of PyeongGang. Hunting provides the opportunity that take in the special food which isn't daily food. Likewise, it do symbolic meaning that king of PyeongGang brought

OnDal with a gauge by a hunting contest that it marry with the new group which isn't the existing 'TongHonGwon通婚圈' that it is containing it. Therefore, to form aesthetics of the dyed work which is surroundings persons of <OnDalJeon溫達傳> is aggressive is playing it.

Key Words : <OnDalJeon溫達傳>, surrounding persons, King of PyeongGang, mother of OnDal, OnDal, PyeongGang, TongHonGwon通婚圈